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 동향 고찰*

이강경** · 설현주***

•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두드러진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략의 핵심요소인 '수단(Means)'의 관점에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 동향을 고찰하였다. 가치와 진영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국가(Like-minded countries)'들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는 전환기적 국제질서에서 북한은 체제생존을 넘어 새로운 전략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보다 강압적인 군사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은 공세적인 대남·대미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식 군사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과학기술정책을 토대로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을 중점 육성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9.19 군사합의'가 백지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채택하고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작전환경은 이미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접어들었고, 동북아 지역에서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향후 북한군이 전술핵무기 운용을 포함하여 핵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비핵·재래식 군사도발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은 북한의 군사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험대에 서 있다.

주제어 : 신냉전, 군사전략, 군사혁신, 국방력 강화, 핵전략

I. 서론

1. 문제 제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확

* 본 연구는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8074424).

** 육군3사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교수 : 교신저자.

전 양상을 보이는 등 최근들어 신냉전의 국제질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국제분쟁이 다중전쟁화하는 양상 속에서 대만의 총통 선거 이후 양안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에서 제3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신냉전의 국제질서에 편승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체제 생존보장과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크게 2가지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첫째, 핵무력 완성 이후 보다 공세적인 방향으로 군사전략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전술무기화하고 다종·다양한 투발수단을 확보한 북한은 최근 전술핵무기 운용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작전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둘째, 공세적 군사전략의 수단(Means) 차원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우주발사체와 군사정찰위성 시험발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무인정찰기·공격기 등을 개발하여 한국군과 한·미 연합전력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12월 28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이하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하 총비서)은 남북관계의 정체성을 ‘교전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였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며 위협수위를 높였다. 특히 “북남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는 발언은 기존의 남·북한 특수관계를 백지화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24년 2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선대의 유훈인 ‘조국통일 3대 원칙’의 폐기를 지시함으로써 대남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대외적으로 선언했다.¹⁾ 북한의 당 전원회의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력을 통한 남한 전 영토의 점령’ 의지를 천명하고, ‘핵물질·핵탄두 증산과 핵실험 계획’이 포함된 ‘2024년 국방력발전 세부과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2023년 12월에 개최된 당 전원회의와 2024년 2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된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은 최근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 동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9.19 군사합의’의 완

1) 2024년 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조국통일 3대 헌장, 즉 ‘① 자주, ② 평화통일, ③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헌법 조항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장 정치의 제9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세부 헌법조항은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北韓法令集) 상권』, 서울: 국가정보원, '22.10, pp.34-35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전한 과거를 선언함과 동시에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²⁾ 또한 북한은 2022년 10월 핵무력을 법제화한 이후 남한에 대한 선제적인 핵사용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에는 전술핵 운용부대를 편성하여 한국의 주요 군사목표를 타격하기 위한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북한군은 각종 열병식 행사를 통해 첨단 무기체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주요 전략·전술무기의 시험발사를 통해 북한 군수공업의 발전동향과 국방력 강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무인 항공공업, 탐지전자전 및 우주개발 부문 등을 포함하는 ‘국방력 발전 세부 추진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³⁾ 북한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은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본격화된 對 러시아 군사지원과 양국의 군사협력 증진을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두드러진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 과정을 살펴 보고, 전략의 핵심요소인 ‘수단(Means)’의 관점에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 동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추동한 영향요인을 짚어보았다. 특히 군사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수단으로서 국방력 강화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가속화된 북한의 군사혁신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현황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 동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신냉전의 국제질서하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재평가하고 한국군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학술적·안보적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된다.

2) 박용한,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와 한국의 대응”, 『KIDA ROK Angle』, 한국국방연구원, 2023.12.26, p.1.

3)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북한의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42호, 통일연구원, 2023.12.31, p.3.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2024년 국방력발전 세부과업’은 다음과 같다. “① 핵물질·핵탄두 증산 및 핵실험 가능성, ②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완성도 제고 및 잠수함발사 전략 순항미사일(SLBM) / 잠수함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SLBM) 개발, ③ 3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 ④ 제2차 함선공업혁명 및 해군 잠수함 등 수중·수상 전력 제고, ⑤ 각종 무인무장장비 및 전자전 수단 개발·생산 등이다.”

4) 홍민, “북러의 군사협력과 외교적 밀착의 전략적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제23-35호, 통일연구원, 2023.10.28, pp.1-9. 이 보고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러시아는 ①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소모전에 대응, ②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견제, ③ 우크라이나-동북아 전선을 연계하여 대미견제를 추구하고, 북한은 ① 대미견제와 대중국 의존성 분산, ② 美 대선 전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 쉐기박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대러 군사지원은 1년 전부터 대량생산체제를 가동한 이후 김정은 총비서의 방러 이전부터 진행되었다고 추정했으며, 러시아의 대북 군사지원 예상분야로는 ‘① 군사정찰위성 개발 지원, ② 공군 현대화 지원, ③ 대공미사일체계 지원, ④ 수상함 개조 기술지원’을 지목했다.

2. 선행연구 검토

탈냉전 이후 글로벌 안보환경의 성격을 구조화시킨 핵심변수는 신냉전(New Cold War)의 국제질서이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로 상징되는 세계화의 물결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급속히 퇴조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중국·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면서 강대국 패권경쟁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가치와 진영을 중심으로 체제 간 대립구도가 심화되는 신냉전의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신냉전은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한 이후 국제정치의 주요 담론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학술적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학자와 안보이슈에 따라 신냉전의 개념과 적용범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국제질서의 성격을 규정하게 될 신냉전의 패러다임은 “과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이념적·군사적 패권경쟁, 즉 舊 냉전체제와 대비되는 새로운 형태의 대결양상”이다.⁵⁾ 신냉전은 탈냉전기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와 강대국 권력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전략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신냉전의 국제질서는 향후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양상과 연계하여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푸틴(Vladimir Putin)이 대통령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하며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한 러시아도 강대국 패권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의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⁶⁾

신냉전의 국제질서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신냉전의 기원과 배경, 舊 냉전체제와의 차이점,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다중전쟁과 연계하여 신냉전의 변화를 전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⁷⁾

5) 이강경 등, 『21세기 국가안보의 뉴패러다임』, 대구: 황금소나무, 2024, pp.215-221. 역사적 관점에서 신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약 40년 간 지속되었던 미·소 중심의 양극체제(Bipolar system)와 탈냉전기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적 패권은 약 20년 간 지속되었던 대분란전(Counterinsurgency)으로 인해 급속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에 반대하고 보다 다극화된 질서를 추구했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강대국 패권경쟁에 돌입하면서 서방 진영과 갈등 구조를 형성했다.

6)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Great Power Competition: Implications for Defense—Issues for Congress”, Updated February 28, 2024, p.39.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3838/95>(검색일: 2024.4.24). 美 의회는 탈냉전 이후 신냉전의 국제질서가 강대국 패권경쟁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군사력 현대화 등을 제시했다.

7) 신냉전과 舊 냉전체제의 차이점, 신냉전의 핵심축인 미·중 전략경쟁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John J. Mearsheimer, “Bound to Fail: The Rise and Fall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주요 선행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냉전의 역사적 기원과 배경에 대한 연구로 김철민은 발칸반도에서 발생했던 코소보 전쟁(Kosovo War, 1999.3~6월)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확장과 푸틴 체제의 출범으로 이어지며 신냉전의 신호탄을 쏘아올렸고, 이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냉전의 세계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⁸⁾ 한편 크리스텐센(Thomas J. Christensen)은 현재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방 진영과 이념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있다는 점, 중국의 군사력과 동맹체제가 취약하다는 점을 근거로 신냉전의 국제질서가 과거 미·소를 중심으로 한 舊 냉전체제와는 구조적으로 상이하다고 평가했다.⁹⁾ 다음으로 카플란(Robert D. Kaplan)은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강력한 위협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으며,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향후 21세기를 정의하는 핵심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¹⁰⁾ 첫째, 지정학적 관점에서는 중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해양패권의 확장을 추구함에 따라 미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카리브해를 기점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해양패권을 추구했던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넘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술적 관점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진영 간 대결구조에 편승하여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서 신냉전적 국제질서의 함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 동향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흐름과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시대별 군사전략의 변화, 김정은 집권 이후 군사전략의 특징과 향후 전망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43, No. 4, 2019, pp.28-40.; Zhiqun Zhu, “The Growing U.S.-China Conflict: Why, and Now What?”, *The National Interest*, June 5, 2019.; Terence Wesley-Smith, “Chapter 2. A New Cold War?: Implications for the Pacific Islands”, in Graeme Smith and Terence Wesley-Smith(eds), *The China Alternative: Changing Regional Order in the Pacific Islands* edited by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2021, pp.74-76.; Niall Ferguson, “The New Cold War? It’s with China, and It has already begun”, *The New York Times*, December 2, 2019.; 반길주, “냉전과 신냉전 역학비교: 미·중 패권경쟁의 내재적 역학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3월, pp.12-34.

8) 김철민,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유럽, ‘신냉전 무대’ 부상과 대응 현황”, 『EU연구』, 제6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2, p.209.

9) Thomas J. Christensen, “No Cold War: Why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will not be like the U.S.-Soviet Cold War”,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eptember 2020, p.44.

10) Robert D. Kaplan, “A New Cold War Has Begun”, *Foreign Policy*, January 7, 2019. <https://foreignpolicy.com/2019/01/07/a-new-cold-war-has-begun/>(검색일: 2024.4.23).

등에 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북한의 국방력 강화 동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두드러진 무기체계 연구개발, 핵무력 강화동향 등을 주로 다루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의 변화된 군사전략과 국방력 발전 동향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안보적 함의가 크다.¹¹⁾ 하지만 신냉전의 국제질서와 연계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김정은 체제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된 시기에 출범했기 때문에 진영 간 대결구도가 뚜렷해진 전환기적 국제질서에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노선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안보이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 이후 전략환경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북한 체제의 군사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 동향을 고찰하고자 하는 접근법은 신냉전의 국제질서가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응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II.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

1.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 과정 고찰

현대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미래전의 패러다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군사전략(Military Strategy)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류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근대 이후 민족국가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접근법으로서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군사전략은 전쟁의 역사와 본질, 전승의 요체를 연구하는 군사학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전략을 뒷받침하는 3대 축은 목표(Ends)·방법(Ways)·수단(Means)이다. 이 중 수단은 특정 국가의 군사전략을 가시화하고 실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

11)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 동향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조하였다. 김태현, “북한군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전략불균형’에 대한 ‘위험관리’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통권 제66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5.7월.; 이상택,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군사』, 제112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월.; 송세관,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와 한국군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년.; 이병철, “북한의 핵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제63호, '23.2월.; 임철균 등,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구상 연구”, 『한국국가전략』, 통권 제23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3.11월.; 김보미,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국방력 발전 계획”, 『INSS 연구보고서』, 제2022-0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3.2월.; 변상정,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정책 주요 내용과 평가”, 『INSS 전략보고』, 제137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1.10월.; 임철균, “북한의 군사혁신과 전략변화 가능성이 주는 함의: 북·중 군사혁신간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제79집 제1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3.2월.

떠난 군사적 방책(Course of action)도 구현될 수 없으며 군사전략이 추구하는 목표, 즉 최종상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 과정을 고찰함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수단에 주목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이 강화해 온 군사과학기술,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전쟁지속능력을 고찰하였다. 신냉전의 국제질서와 남·북 분단체제가 고착화된 한반도에서 장기간 군사적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군에게 북한군의 군사전략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현 군사위협에 대응하고 미래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위협 등 대량살상무기에 기반하여 공세적으로 변화된 북한 군사전략의 특징과 향후 전개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과정에서 구체화된 전통적 군사전략과 변화 과정을 짚어보겠다. 또한 핵개발 이후 변화된 군사전략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최근 북한의 군사전략을 변화시킨 추동요인을 살펴보겠다. 먼저 북한군의 전통적 군사전략을 살펴보기에 앞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군사전략의 이론적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최근 신냉전의 국제질서가 구조화하고 가치와 진영을 중심으로 한 대결 구도가 뚜렷해짐과 동시에 다중전쟁의 시대에 전쟁의 양상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북한의 군사전략도 진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분쟁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전략은 첨단 과학기술과 연계된 현대전의 특징과 미래전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군은 ‘기습공격, 배합전, 속전속결’에 중점을 둔 전통적 군사전략을 중시하면서 보다 강력해진 핵무력에 기초하여 다양한 전략·전술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한반도 작전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군사전략의 변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¹³⁾

12) Arthur F. Lykke, “Defining Military Strategy”, *Military Review*, January-February 1997, p.184. 美 육군 출신의 군사전문가인 라이케(Arthur F. Lykke)는 군사전략의 3대 요소인 목표, 방법, 수단을 ① 군사적 목표(Military objectives), ② 군사전략개념(Military strategic concepts), ③ 군사적 자원(Military resources)으로 각각 제정하였고, 그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군사적 목표와 군사전략 개념은 군사적 자원의 적정 소요를 결정함과 동시에 군사적 자원의 가용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둘째, 군사적 자원을 군사전략의 핵심요소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 이른바 ‘전략-능력의 불일치(Strategy-capabilities mismatch)’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라이케는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고 군사전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자원, 즉 군사적 수단과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3)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2.12, p.25.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부대, 사이버·전자전부대와 같은 비대칭 전력증강, 선별적인 재래식 무기체계의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각종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발사하고 있으며, 약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여 최신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등 사이버전력 증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1〉 군사전략의 개념적 정의

구 분	주 요 개 념
Karl von Clausewitz	•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투의 전개
B. H. Liddell Hart	• 전시 정치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군사적 수단을 분배·적용하는 기술
Colin S. Gray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또는 군사적 위협의 사용
John M. Collins	• 국가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력을 결합시키는 기술
J. C. Wylie	• 목적달성을 위해 강구되는 제반수단과 방법을 포함한 행정계획
Robert E. Osgood	•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력의 전반적인 사용 계획
Arthur F. Lykke	• 군사전략은 군사목표, 군사전략개념, 군사자원과의 상호관계임
美 합동참모본부	•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력을 운용하는 술(Art), 과학(Science)
한국군 국방부	•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적 수단을 효과적으로 준비·계획·운용하는 방책
북한군	• 무력배치, 전투조직 및 진행 등 전쟁 전반을 영도하는 작전방침

출처: 이상택,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軍史』, 제112호, 2019.9월, pp.133~135.에서 재인용¹⁴⁾

북한군의 군사전략은 중국의 유격전 사상과 舊 소련의 정규전 사상을 적극 받아들인 김일성이 이른바 ‘주체전법’을 제시하면서 태동하였고, 냉전시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중동전쟁 등의 국지전 경험을 통해 얻은 전훈이 반영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요체로 구성되었다.¹⁵⁾ 첫째, 선제기습전략은 전혀 예상치 못한, 예상하더라도 대응시간을 박

14) 이 논문에서 제시한 군사전략의 개념적 정의는 다음의 연구문헌을 참조하였다: Julian Lider, *Military Theory: Concept, Structure, Problems*, Aldershot, England: Gower Pub., 1983, pp.192-193.; Colin S. Gray, *Modern Strate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17.; John Garnett, “Strategic Studies and It’s Assumption”, in John Baylis, et. al(eds.), *Contemporary Strategy and Policies*, New York Holms & Meier Pub., 1976, pp.4-5.; 국방대학원, 『안전보장이론』, 서울: 국방대학원, 1991, p.399.; Robert E. Osgood, *The Entangling Allia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p.5.; U.S. Department of Defense(DoD), *Joint Doctrine Note 1-18 Strateg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2018, p.I-7.;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국방대학교, 2010, p.88.; 남만권, “해무장 전·후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비교”, 『군사학연구』, 제5호,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2007, pp.173-199.; John P. Steward and Arther F. Lykke, Jr.,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1982, p.311.

15) 박용환, “북한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핵개발 이후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6권 제1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0, pp.121-126. 이 논문에서는 김일성 시대의 주체전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은 1970년 11월 2일 노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산과 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나라이다. 이와 같은 지형조건을 이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잘하고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윤택 배합하면 비록 최신군사기술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이라도 얼마든지 격멸할 수 있을 것이

탈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방법을 택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전략이다. 선제기습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군사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전략으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모든 군사작전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일성 시대에 선제기습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① 북한의 전쟁수행 개념이 공세적이고, ② 한반도 작전환경이 산악지형 위주이며, ③ 경제력과 인구규모 등의 측면에서 북한이 한국에 비해 열세하고, ④ 사전 예고된 전쟁도발 시 공격효과가 감소하여 전쟁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배합전략은 하나의 전투에 2가지 이상의 작전형태를 혼합해서 전투를 수행하는 전략으로 김일성이 제시한 주체전략과 동일한 군사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이 배합전략을 선택했던 주된 이유는 ① 배합전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전형적인 전쟁수행 개념이고, ② 당시의 국지전 양상을 고려했을 때 정규전 부대와 비정규전 부대의 배합은 상호 미비점을 보완해주고 작전 템포를 가속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으며, ③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한반도는 유격전을 전개하기가 유리했기 때문이다. 셋째, 속전속결전략은 우세한 병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여 적의 주력부대를 각개격파하고 단기간에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북한군이 속전속결전략을 채택한 이유는 ① 한국전쟁의 교훈으로 美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종결하지 못할 경우 전쟁목적 달성이 어렵고, ② 단기결전에 실패할 경우 국제적인 비난여론과 군사적 제재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며, ③ 장기전으로 전환 시 전쟁물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전쟁지속능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전통적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재래식 전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대전 양상과 첨단 무기체계의 발전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즉, 북한의 전통적 군사전략은 6.25전쟁과 같이 재래식 전력에 의존하여 한반도 전역을 석권하고자 했던 접근법으로 지역 확보에 중점을 둔 전략개념이었다. 따라서 탈냉전 이후 가속화된 서방진영의 군사혁신과 미래전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북한군의 시대별 군사전략 변화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겠다. 군사학자 이상택은 라이케(Arthur F. Lykke)의 군사전략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의 시대별 군사전략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북한군은 산악전과 야간전, 갱도전, 기동전, 기습전, 배합전을 주체전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표 2〉 북한의 시대별 군사전략

구 분	김일성 시대 (1948~1994)	김정일 시대 (1994~2011)	김정은 시대 (2011~현재)
국가목표	한반도의 공산화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화	한반도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군사목표	한반도 전역 점령	한반도 전역 점령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위협 제압
군사전략개념	공세전략	공세전략	공세전략
군사자원	재래식 무기, 화생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화생무기, 미사일	핵·미사일, 재래식 무기, 화생무기

출처: 이상택, 위의 논문, p.139에서 재인용. 김정은 시대의 군사전략은 최근 北 개정헌법, 당규약 참조 후 필자가 재작성.

이상택은 북한 군사전략의 특징을 ‘① 군사목표의 불변성, ② 군사전략개념의 공세성, ③ 군사자원의 공세성과 절대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¹⁶⁾ 첫째, 군사목표의 불변성 측면에서 북한의 군사전략은 한반도 전역 점령, 美 제국주의의 지배를 청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군사목표가 일관성있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의 군사전략 개념은 김일성 시대 이후 현재까지 방어적이라기 보다는 매우 공세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군사자원의 측면에서는 분단 이후 지속된 군비경쟁에서 공세적 성격이 강화되었고, 특히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절대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전략 변화 동향과 시사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남한과의 국력 격차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핵무력 건설에 사활적 노력을 기울였다. 제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사실상(De facto)의 핵무기 고도화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 투발수단의 다종화를 위해 다양한 ICBM을 시험발사하고 전술핵부대 운용을 공언하는 등 핵보유국 지위의 기정사실화(Fait accompli)를 꾀하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미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군사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동향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¹⁷⁾ 첫째,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16) 이상택, 앞의 논문, pp.156-160.

17)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CRS In Focus* 10472, Updated December 19, 2023, pp.1-3. <https://sgp.fas.org/crs/nuke/IF10472.pdf>.(검색일: 2024.3.5). 美 의회조사국(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의회예산처와 연방회계감사원, 기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억제능력과 강압적인 외교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다. 美 정보당국은 2023년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기 때문에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했다.¹⁸⁾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된 북한의 입장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정치적 이점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다종의 투발수단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탄두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에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표준화하여 전술무기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2023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고 전술핵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셋째,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 목표는 비행중에 요격이 쉽지않도록 신뢰성과 효율성 및 생존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등으로 구성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을 무력화하거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직까지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제7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력을 한층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확률상의 핵보유국(A stochastic nuclear-armed state)’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핵무력을 지렛대로 삼아 보다 강압적인 방식의 군사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월, 美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이하 NIC)에서 발표한 정보평가보고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에 따르면, 북한은 향후 2030년까지 다음과 같이 3가지 시나리오를 축으로 핵무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¹⁹⁾ 첫째, 강압적 차원(Coercive purpose)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외교적 차원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며 통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치명적인 비핵(非核)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때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대응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

술평가원 함께 미국 의회의 4대 입법보조기관에 속한다. 1914년 초당파적인 독립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연방 의원들과 상임위원회의 등의 요구에 따라 각종 조사와 연구, 분석활동을 실시하며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공한다.

18) U.S.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February 6, 2023, p.20. <https://www.dni.gov/files/ODNI/documents/assessments/ATA-2023-Unclassified-Report.pdf>(검색일: 2024.5.2).

19)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orth Korea: Scenarios for Leveraging Nuclear Weapons Through 2030”,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January 2023, pp.1-2. <https://www.dni.gov/files/ODNI/documents/assessments/NIC-Declassified-NIE-North-Korea-Scenarios-For-Leveraging-Nuclear-Weapons-June2023.pdf>.(검색일: 2024.3.21).

다고 분석했다. 둘째, 공세적 차원(Offensive purpose)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무력을 사용하여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고자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때 북한은 남한을 지배하기 위해 핵무력을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방어적 차원(Defensive purpose)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무력을 억지의 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북한은 방어적인 목적의 핵독트린을 채택하고 외교적인 강압 정책을 포기할 수 있으며, 진정성있는 신뢰구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美 NIC 정보평가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북한은 향후 한반도에서의 정치적·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공세적으로 핵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억지의 수단으로 핵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토대로 체제생존을 모색함과 동시에 대미·대남관계에서도 핵무력을 협상의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전략의 관점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무력 완성과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는 ‘북한의 체제생존과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군사적 목표 달성, ‘공세적인 대미전략 및 강압적인 대남전략’이라는 군사전략개념 구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힘의가 매우 큰 변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핵개발 이후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 양상을 살펴보겠다. 이와 관련하여 박용환은 북한군이 한반도 작전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핵무기 개발 이후 선택하게 된 군사전략을 다음과 같이 5가지 접근법으로 제시하였다.²⁰⁾ 첫째, 비대칭전략이다. 이는 적의 강점을 회피하고 약점을 공략하여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으로 북한은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은 무기체계 등 비대칭 수단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유사시 결정적 타격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추구해 온 핵무력 건설과 화생무기, 전자기필스(EMP)와 같은 비핵 재래식 전력은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이다. 북한군은 비대칭 무기를 ‘① 개선 초기 주도권 장악, ② 美 증원군과 같은 외부세력의 개입 저지, ③ 평시 남북관계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대량보복전략은 선제공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여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일종의 억제전략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고도화된 핵무력을 기반으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고 체제생존을 모색할 것이다. 셋째, 공세적 공격전략은 기동성을 갖춘 부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신속·과감한 군사행동을 통해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다. 북한군이 공세적 공격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① 한국군에 비해 다수의 기갑 및 기계화부대와 포병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② 휴전선 일대의 전방군단에 특수

20) 박용환, 앞의 논문, pp.129-136.

전부대를 집중 배치하여 배합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고, ③ 북한군의 주력이 대부분 전진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중심타격전략은 적의 중심을 타격함으로써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기능을 마비시켜 효과적인 대응을 거부하는 전략이다. 북한군이 효과적인 중심타격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는 한국군의 핵심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포병·미사일부대와 특수전부대, 첨단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이버전략이다. 북한군은 회색지대(Grey zone) 전술의 일환으로 군사적 충돌은 회피하면서 사이버 해킹과 같은 유·무형의 소규모 공격을 통해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이 핵·미사일, 군 정찰위성 개발과 함께 사이버 해킹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8월, 북한의 해커집단이 러시아의 주요 미사일 개발업체의 방화벽을 뚫는 데 성공했던 사례는 북한군의 사이버 작전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美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발표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디지털 위협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 목표를 "① 한·미·일 3국의 주요 군사활동에 대한 핵심정보 수집, ② 북한군의 군사역량 강화를 위한 타국의 군사력 관련 정보 수집, ③ 암호화폐 탈취를 통한 통치자금의 확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²¹⁾

2.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 요인

전술한 바와 같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전략은 핵무력에 기반하여 보다 공세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본 항에서는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가시화된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 요인을 살펴보겠다. 이와 관련하여 송세관은 북한 군사전략의 대내·외적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김정은 시대의 북한 군사전략을 고찰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²⁾ 먼저 북한 정권은 열악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핵개발로 인한 한·미 양국과의 지속적인 마찰, 전통적인 북·중관계의 훼손²³⁾,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한 비우호적인 국제여론 형성의 문제가 노정되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집권 이

21) Microsoft Threat Intelligence, "Sophistication, scope, and scale: Digital threats from East Asia increase in breadth and effectiveness", September 2023, pp.1-19. <https://query.prod.cms.rt.microsoft.com/cms/api/am/binary/RW1aFyW>. (검색일: 2024.4.20).

22) 송세관,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와 한국군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8.4월, pp.38-45, 89-109.

23) 송세관은 위의 논문에서 전통적인 북중관계가 혈맹에 기초한 우호관계를 지속해 왔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독자적인 행보가 지속됨에 따라 양국 간 국가이익이 상충하면서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으며, 그 근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북한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을 먼저 방문한 사례를 제시하였고 이는 북한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였다고 분석했다.

후 지속되어 온 경제난으로 인해 군사력 건설 및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열악해진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합리화해 왔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보다 공세적인 방향으로 통치리더십을 변화시켰다. 동시에 비대칭 군사력이 강화되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축으로 군사전략의 변화를 꾀했다. 즉, 북한군은 평시에는 김정은을 결사옹위하기 위해 전쟁을 억제하는 ‘체제유지 전략’을 고수하고,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해 ‘공세적 결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 체제유지 전략은 미국으로부터 선제공격을 억제하고 핵·WMD를 기반으로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실행하는 ‘실존억제와 화전양면전략’을 의미한다. 둘째, 공세적 결전전략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전쟁수행 전략으로 ‘선제기습 속전속결전략’과 ‘WMD를 결합한 전략지역 확보전략’을 공세적으로 결합하는 개념이다.

한편 김태현은 북한군 군사전략의 변화를 ‘전략불균형’에 대한 ‘위험관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군사전략의 결정요인이 ‘안보환경의 변화와 자원의 제약’으로 변화되었다고 규명하였다.²⁴⁾ 최근 북한은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대칭 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동시에 강화했는데, 이는 전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위험관리 차원에서 선택되었던 군사전략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전략불균형(Mismatch of strategy)은 ‘군사전략의 3요소인 목표와 방법, 수단 간에 발생하는 차이 또는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간주할 수 있다. 김태현은 북한군이 김정은 집권 이후 전략환경의 악화와 자원의 결핍으로부터 유발된 전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군사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향후 김정은 시대를 특징지을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겠다. 임철균 등은 군사전략의 3대 요소인 ‘목표-방법-수단’을 중심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분기점을 3단계로 구분했으며, 북한군의 미래전 구상과 연계하여 군사전략의 변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²⁵⁾ 먼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은 군사전략을 변화시킨 두 개의 분기점, 즉 ① 2011년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②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연계된 정밀타격역량을 확보했으며, 향후 우주전 역량을 포함하여 ‘첨단 전투기체에 기반한 지능화전 역량’을 확보하는 세 번째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군은 새로운 분기점을 준비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사정찰위성을 개발하는 등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철균 등은 향후 북한군이 추구할 군사전략의 변화 방향이 군사혁신과 연계하여 크게 3가지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24) 김태현, “북한군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전략불균형’에 대한 ‘위험관리’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통권 제66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5.7월, pp.167-204.

25) 임철균, “북한의 군사혁신과 전략변화 가능성이 주는 함의: 북·중 군사혁신 간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제79집 제1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3.2월, pp.62-66.

전망했다. 첫째, 북한군은 공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게임체인저급 수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최근 북한군이 시험하고 있는 정찰위성과 무인체계 등이 대표적인 첨단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핵 지상주의’ 노선을 유지할 것이다. 북한은 향후 핵무기를 억제뿐만 아니라 강압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극단적 비대칭성을 활용하여 상대적 우세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구조화된 신냉전의 국제질서와 연계하여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 보다 공세적이고 강압적인 군사전략을 추구하도록 이끈 추동요인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략적 차원에서는 진영 간 대결구도에 놓인 북한이 변화된 지정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전략적 위상 강화를 모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장기전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체계와 탄약을 지원하며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이 다극적 국제질서를 요구하며 대미 저항의 축을 형성하는 있는 중국·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군사적 차원에서는 국방력 강화를 통해 강압적 외교를 구사할 수 있는 군사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북한이 2022년 핵독트린 선언 및 핵무력정책 법제화 이후 제7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군사적 목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셋째, 외교적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남북관계에서 대남전략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북한은 비핵화와 연계하여 교착상황에 봉착해 있는 대미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대남전략에서의 확고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차원에서 핵무력의 완성 과 공세적인 군사전략 변화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북한의 국방력 강화 동향

북한은 ‘병영국가(Garrison state)²⁶⁾, ‘유격대국가(遊擊隊國家)²⁷⁾, ‘상시전비국가(Nation

26) Harold D. Lasswell, “The Garrison Stat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46, No. 4, January 1941, pp.455-468. Lasswell이 제시한 병영국가 개념은 국가의 성격을 일종의 요새화된 군사시설에 비유한 것으로, ‘위험의 사회화’를 통해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여 국가전체가 전쟁준비에 몰두하는 국가체제를 뜻한다. 병영국가의 특징은 지배엘리트를 중심으로 강압적인 통치 방식을 정당화하고 군사적 규율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특히 병영국가는 일반대중을 희생양으로 삼아 강제노동을 통해 국가에 봉사할 의무를 강요한다.

-in-arms)²⁸⁾ 등의 개념으로 상징되는 군사국가화된 특수 체제로서 정전(停戰)협정 체결 이후 분단상황 하에서 남한과 군비경쟁을 지속해 왔다. 또한 체제수호와 생존을 위해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 지속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건설에 매진해 왔으며, 이를 대남·대미관계에서 강압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냉전기와 탈냉전기 한반도 군비경쟁의 양상이 재래식 전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김정은 집권 이후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북한은 게임체인저인 핵무력을 완성하고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한반도 작전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군사력 건설을 가능하게 해준 핵심요인인 군수·방위산업 현황을 중심으로 국방력 강화 동향을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군수산업 정책, 김정은 집권 이후 국방력 발전계획을 짚어보겠다. 먼저 냉전기와 탈냉전기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6.25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은 전후재건과 경제발전을 추진했으며, 분단체제라는 특수한 안보환경 하에서 군비경쟁을 통해 군사적 대결을 지속해 왔다. 특히 전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적 대립, 중국의 개혁·개방, 공산진영의 붕괴 등 국제질서의 주요 변화를 경험하며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추구하며 체제생존의 길을 모색했다.

미·중 전략경쟁과 신냉전의 국제질서가 본격화된 시기에 등장한 김정은 체제는 우선적인 국방력 강화를 통해 대미억제력을 확보하고 남북관계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전략적 노선은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2021년부터

27) 와다하루끼, 남기정 옮김, 『와다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과주: 창비, 2014. pp.166, 256. 일본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와다하루끼(和田春樹)는 김일성 시대에 확립된 북한체제를 이른바 ‘유격대국가’로 정의했다. 유격대국가란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항일유격대원의 모범화에 이어 주체사상이 확립됨으로써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 국가체제”를 의미한다. 즉, 김일성을 사령관으로 하고 모든 인민들이 유격대원이 되는 국가를 뜻한다. 와다하루끼는 김일성 시대의 유격대국가가 김정일 통치기에는 선군정치, 다시말해 군부가 공산당을 장악하는 ‘정규군국가’로 변화되었다고 평가했다.

28) 임재천, “상시전비국가(Nation-in-Arms) 개념의 북한 적용 가능성”,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5, pp.264-266. 상시전비국가(常時戰備國家)는 벤-엘리저(Uri Ben-Eliezer)가 이스라엘의 국가성격을 분석하면서 제시한 개념으로, ‘상시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무장국가’를 의미한다. 벤-엘리저는 상시전비국가의 개념을 “군사와 전쟁 관련 문제들을 전 국민적 사업으로 만들고, 그러한 문제들이 국가의 주요 관심사가 되도록 만드는 군사주의적 정치(Militaristic politics)의 한 형태”라고 규정하였다.; 류길재, “예외국가의 제도화: 군사국가화 경향과 군의 역할 확대,” 최완규 편, 『북한의 국가 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 서울: 한울, 2001, pp.107-139. 류길재는 벤-엘리저가 제시한 ‘Nation-in-arms’를 군사국가로 인용하였고 “국가 운영을 위한 규범과 의식, 절차, 관행 등 제도적 틀이 군사문화 또는 병영문화에 토대하고 있는 국가”라고 정의했다.

〈표 3〉 냉전·탈냉전기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

구분	주요내용
김일성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대 : 재래식 무기 생산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중공업 재건을 통한 군수산업 발전 추진 - 무기·장비의 질적 향상 도모, 자체 개발 또는 기술도입 생산품 양산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전환 준비: 전략물자와 원자재 비축, 민수공장의 평시 동원지정 등 - 1962년 ‘경제·국방건설 병진’ 방침, 4대 군사노선 채택 → 국방력 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산업 기반 확충: 국방공업발전기구 창설(제2기계공업성, 국방과학원) - 화학무기 양산시설 구축, 핵무기 기초연구 착수 ● 1970년대 : 주요 전투장비 양산체제 구축(전차, 자주포, 장갑차, 잠수정 등) ● 1980년대 : 국방공업의 질적 향상(항공기, 유도무기 생산능력 강화)
김정일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 : 재래식 무기의 양산체제 구축, 정밀무기체계 개발(노동미사일 등) ● 2000년대 : 핵무기 개발·실험,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출처: 권양주, 『김정은 시대 북한 군사의 이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pp.313-326.

2025년까지 초대형핵탄두를 포함하여 극초음속 무기와 원자력추진잠수함, 정찰위성 등 첨단 전력을 개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보미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방력 강화 동향에 대해 아래의 〈표 4〉와 같이 3단계 시기로 구분하여 주요 추진현황을 제시하였다.²⁹⁾ 첫째, 핵보유국 지위 확립기에는 경제·핵무력병진노선의 추진과 연계하여 핵무력의 고도화를 추진했다. 둘째, 국가핵무력 완성기에는 핵실험과 투발수단의 확보를 통해 대미·대남억제 역량을 강화했다. 셋째, 불가역적 핵보유국 선언기에는 공세적 핵태세를 채택하여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23년 12월, 북한은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를 통해 국방력 발전에 대한 세부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교전중인 적대국 관계’로 선언하고, 핵무력을 포함하여 ‘무력에 의한 영토완정’을 강조한 상황에서 향후 북한은 핵·미사일, 정찰위성, 무인기 개발 등 국방력 발전 과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9) 김보미,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국방력 발전계획”, 『INSS 연구보고서』, 2022-0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3.2월, pp.45-85.

〈표 4〉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방력 강화 동향

구 분	주 요 내 용
핵보유국 지위 확립기 (2012~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5월, 북한의 개정헌법에 ‘핵보유국’ 명기 • 2013년 2월, 3차 핵실험 :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에 성공 • 2013년 3월, 경제·핵무력병진노선 채택 • 2013년 4월,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 채택 • 2013년 6월, 북한의 유일사상 10대 원칙 개정 * ‘핵무력 중추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방침 명시 • 2014년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별도의 병종인 ‘전략군’ 창설 공식화 • 2015년 5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국가 핵무력 완성기 (2016~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5월, 핵선제불사용(No First Use) 원칙 선언 • 2016년 1월, 9월에 제4~5차 핵실험 실시 • 2017년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 •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수소탄) 실시 •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 • 2018년 4월, 병진노선의 승리 선언,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매진 • 2019년 5월 이후,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KN-23·24·25) • 2019년 7월 이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
불가역적 핵보유국 선언기 (2021~20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시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방침 재확인, 국방공업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 발표 *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 선언 • 2021년 2월 이후, 전술핵무기,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정찰위성 개발 • 2022년 9월,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

출처: 김보미, 위의 논문, pp.45-85.

1. 북한군의 군사혁신 동향

근·현대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요 패권국가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로운 군사기술을 적용하여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창의적인 전술(戰術)·전기(戰技)를 연마함으로써 전장을 지배해 왔다. 다시말해 전쟁사는 끊임없는 군사혁신의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폴레옹 전쟁과 양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현대전에서 주요 강대국들은 군사혁신을 통해 전쟁의 양상과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왔다. 냉전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군비경쟁이 심화하면서 양국 모두 군사혁신을 추진했으며 군사력의 상대적 우위를 추구하기 위해 경쟁했다. 탈냉전기 이후 신냉전의 국제질서가 구조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 열강들은 사이버·우주공간을 포함하는 다영역의 전장환경에서 상대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사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북한도 예외일 수 없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핵무력 건설을 위한 국방력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북한식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군사혁신(Military Revolution)의 개념은 舊 소련의 오가르코프(N. V. Ogarkov)가 제시한 정찰-타격 복합체(Reconnaissance-Strike Complexes) 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인터넷 혁명과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던 군사적 대변화를 지칭한다.³⁰⁾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은 1990년대부터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과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쟁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군사혁신의 이론적 개념을 발전시켰다. 특히 미국은 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군사변혁에 박차를 가했으며, 그 결과 지상군을 경량화하고 신속기동화함으로써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舊 소련과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제시한 군사혁신의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러시아 연방군 총참모대학원 과학연구부장 출신의 슬립첸코(Vladimir I. Slipchenko)는 전쟁의 세대를 아래의 표와 같이 6단계의 축으로 구분하였고 군사과학기술이 세대변화를 촉진하는 핵심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했다.³¹⁾

〈표 5〉 Slipchenko가 제시한 군사혁신의 구분

구분	시기	전쟁의 양상	전투수단	전투방식
1세대	봉건시대	근접백병전	창, 칼, 활	밀집대형 전투
2세대	절대군주 시대	상동	활강총(흑색화약)	용병술의 변화 (산개대형)
3세대	프랑스혁명	상동	소총, 야포	대군주의(Mass army), 국민군 개념 등장
4세대	산업혁명	기동과 화력 중심전	자동화기, 전차, 전투기, 수송·통신수단	전장의 확대 (지상, 해상, 공중)

30)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 개론』,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0, pp.496-497. 이 책에서는 오가르코프의 정찰-타격 복합체 이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오가르코프는 첨단 군사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어체계(New Control System)와 높은 정확도의 장거리 정밀타격무기를 결합하면 새로운 차원의 정밀-타격 복합체를 창출해 혁신적 전투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함.”

31) Vladimir I. Slipchenko, "A Russian Analysis of Warfare Leading to Sixth Generation", *Field Artillery*, October 1993.; 황진환, “북한의 군사혁신: 패턴과 전망”,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구보고서』, '00. 12.31, p.6.에서 재인용.

구분	시기	전쟁의 양상	전투수단	전투방식
5세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전쟁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총력전 + 제한전
6세대	21세기	항공·우주·전자전	지휘통제기술, 정밀유도무기 등	우주기반 전쟁

출처: 황진환, “북한의 군사혁신: 패턴과 전망”,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구보고서』, '00.12.31, p.7.

다음으로 미국의 군사분야 전문가인 크레피네비치(Andrew F. Krepinevich)는 군사혁신의 과정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출현으로 군사전략·전술·조직 등 전쟁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때 구현되는 것이며, 군사혁신의 결과 전투력의 승수효과가 창출된다고 평가하였다.³²⁾ 또한 美 RAND 연구소의 헨들리(Richard O. Hundley)는 군사혁신의 개념을 군사작전 시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 of a dominant player)을 중심으로 정의했다. 즉, 적의 핵심역량을 진부하게 만들거나 아군이 새로운 핵심역량을 창출할 때 비로소 군사혁신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군사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과 핵심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과 도전이 필요하며, 그러한 혁신의 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³³⁾ 한편 비트징어(Richard A. Bitzinger)는 군사혁신을 ‘전쟁수행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관점으로 개념화하였다. 즉, 화약·철도·내연기관·집적회로(IC) 등 전쟁의 역사를 변화시켜온 군사기술의 발달을 통해 혁신이 촉발되지만,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반드시 군사교리·전술·조직분야의 혁신과 융합될 때 구현되는 군사적 변화임을 강조했다.³⁴⁾ 특히 비트징어는 군사혁신이 군대의 구조적·제도적·개념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고 보았다.

북한군의 군사혁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국가행사 중의 하나가 ‘당 창건’ 및 ‘조선인

32) Andrew Krepinevich, “From Cavalry to Computer: The Pattern of Military Revolutions”, *The National Interest*, No. 37, Fall 1994, p.30. 크레피네비치는 군사혁신의 4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기술적 변화(Technological change), ② 시스템 개발(Systems development), ③ 작전적 혁신(Operational innovation), ④ 조직의 적응(Organizational adaptation).” 특히 군사혁신의 4가지 요소와 적대세력과의 군사적 경쟁 수준에 따라 군사혁신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33) Richard O. Hundley, “Past Revolution, Future Transformation: What can the history of revolutions in military affairs tell us about transforming the U.S. military?”, RAND’s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1999, pp.59-73. https://www.rand.org/pubs/monograph_reports/MR1029.html. (검색일: 2024.3.17).

34) Richard A. Bitzinger,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and the Global Defence Industry: Reactions and Interactions”, *Security Challenges*, Vol. 4, No. 4, Summer 2008, p.2. https://www.academia.edu/11905968/The_Revolution_in_Military_Affairs_and_the_Global_Defence_Industry_Reactions_and_Interactions. (검색일: 2024.3.12).

민군 창군'을 기념하여 열리는 열병식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의 열병식은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 개념을 넘어 최고지도자의 육성 연설을 통해 군심(軍心)을 장악하고 민심(民心)을 결집시킴으로써 유일지배체제를 확고히 다지는 국가적 차원의 공식 행사였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각종 열병식 행사에서 북한이 역점을 두어 개발한 핵·미사일 전력과 첨단 무기체계들을 선보이며 대내·외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선전·선동의 정치적 장(場)으로 활용되었다. 2023년 7월 27일 개최된 전승절(6.25전쟁 정전 협정일) 70주년 열병식에서 북한군은 전략무인정찰기(셋별-4형), 다목적 공격형무인기(셋별-9형)를 포함하여 수중핵어뢰(해일), 극초음속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7형, 화성-18형), 신형 단거리 정밀타격미사일(KN-23, KN-24, KN-25) 등 최신 전략·전술무기들을 공개했으며, 특히 북·중·러 3국의 연대와 군사협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한·미 양국을 향해서는 공세적 무력 행사 의지를 보여주었다.³⁵⁾

북한의 군사혁신 추진과정과 최신 동향을 이해하는 것은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의 발전추세와 북한군 군사전략 변화와의 연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군사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군사혁신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핵무력 완성 이후 첨단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군의 군사혁신 특징과 동향을 짚어보겠다.

먼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군사혁신 추진현황과 주요 특징에 대해 황진환은 북한군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전략이 한·미 연합전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변화·발전되어 왔다고 평가하였고, 1980년대 중반 전후 군사혁신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³⁶⁾ 냉전 말기에 북한이 나름의 방식으로 군사혁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남한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남·북한 간 국력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한·미 연합전력에 비해 북한이 상대적으로 군사력의 열세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군사혁신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북한군은 특수한 안보환경 속에서 다음과 같이 2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군사혁신을 추진했다. 첫째, 북한은 양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전력에 비해 질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분야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군사전략을 개발하고 군조직의 편제를 조정했다. 둘째, 북한은 한·미 연합군과 경쟁할 수 없는 취약분야를 선택

35) 홍민, “북한 정전협정일 70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 『통일연구원 현안분석』, 제23-18호, 통일연구원, '23.7.29, pp.1-9.

36) 황진환, 앞의 논문, pp.22-93.

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비대칭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하여 전쟁수행 개념을 발전시켰다. 한편 냉전시기 북한의 군사혁신은 낙후된 경제여건과 과학기술 수준으로 인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했던 상쇄전략(Offset strategy)과는 성격이 달랐다.³⁷⁾ 이와 관련하여 황진환은 북한군이 지향했던 군사혁신의 방향은 한반도 작전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다음과 같이 3가지 접근방식을 취했다고 분석했다. 첫째, 북한은 전략적 중심에 대한 방공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남한의 중심인 수도권을 기습적으로 집중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의 일환으로 전국토의 요새화를 추진하여 전지역에 8,000여 개의 지하시설과 요새를 구축하고 소련제 지대공미사일(중고도용 SA-2, 저고도용 SA-3, 고고도용 SA-5)을 배치했다. 특히 남한 수도권을 겨냥하여 휴전선 일대에 170mm, 240mm 방사포를 전진배치했다. 둘째, 북한군은 작전개념과 조직개편을 통해 군사력의 운용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혁신전략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총참모부를 중심으로 단일군 체제를 도입하여 합동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갑/기계화부대 개편을 통해 대남 속전속결 전략을 한층 강화했다. 셋째, 북한은 화학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선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낙후화된 재래식 전력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했다. 바로 이 시기에 북한은 핵개발을 시도했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체제생존을 모색하는 등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했다.

다음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혁신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다. 이와 관련하여 임철균은 북한의 군사혁신과 군사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고찰한 연구에서 2018년 개최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북한이 군사혁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선과 전략무력의 운영 방침을 결정했다고 평가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⁸⁾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체제결속과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군사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북한은 핵·미사일을 포함하여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포함하

37) 강석율,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 『KIDA 연구보고서』, 안보2021-4658호, 한국국방연구원, '21.11월, pp.1-18. 이 보고서에서는 상쇄전략의 개념을 “경쟁의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함으로써 우위를 담보하는 전략”으로 정의했다. 또한 시대별로 미국이 추진한 상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1차 상쇄전략은 서유럽에서 소련의 재래식 전력이 미국을 압도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50년대 초반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추진한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전략을 지칭한다. ② 2차 상쇄전략은 군사혁신의 논리에 따라 정밀유도무기(PGM) 기반의 장거리 정밀타격능력과 네트워크화된 지휘통제 체계에 기반한 전쟁수행 개념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③ 3차 상쇄전략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 국방전략의 차원에서 공식화되었으며 국방조직과 작전개념, 국방기술의 혁신을 통해 중국·러시아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및 군사위협을 상쇄하기 위한 혁신전략이다.”

38) 임철균, 앞의 논문, pp.123-154.

여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지상군 강화 등 광범위한 군사혁신을 단행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최고사령관의 군 장악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력을 강화시켰으며, 2020년에는 다섯 번째 군종인 특수작전군을 창설하여 미래전을 준비했다. 특히 2018년 7월에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5차 확대회의를 통해 ‘군수생산계획 지표’를 승인함으로써 향후 북한군의 군사전략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은 집권 시기를 특징짓는 북한 군사혁신의 특징은 핵무력 완성 이후 핵을 투발하기 위한 다종의 투발수단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비용 대비 효과가 탁월한 첨단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이 정찰위성을 전력화하여 실전운용할 경우 한국군의 지상작전과 한·미 연합작전태세에 치명적인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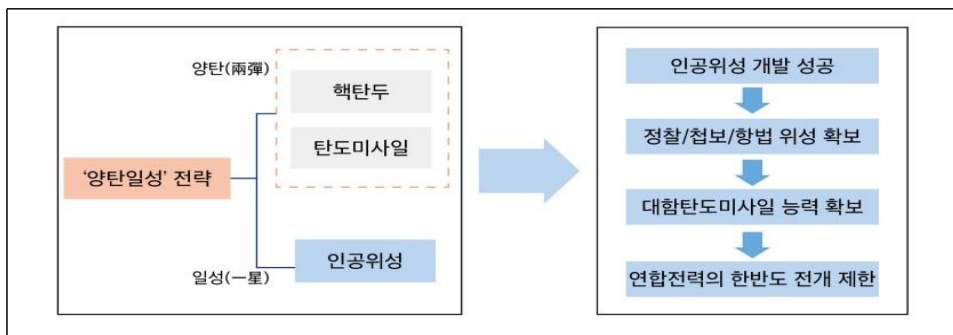
2.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동향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무력 건설을 중심으로 국방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각종 열병식에서 다종·다양한 전략무기와 핵투발수단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군사도발을 지속하면서 제7차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세이건(Scott D. Sagan)은 특정국가의 핵 개발 이유를 크게 안보모델(The Security model)과 국내정치 모델(The Domestic Politics model), 규범적 모델(The Norms model)로 설명했다.³⁹⁾ 북한이 3대 세습체제를 이어오며 핵무력 건설을 포함하여 국방력을 강화해 온 이유를 세이건이 제시한 3가지 모델을 적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모델에 따르면 북한은 신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치며 심화된 한·미 연합군과의 전력 격차를 상쇄하기 위해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비대칭적 억제(Asymmetric deterrence)의 차원에서 북한은 전술핵무기와 초대형방사포, 전략순항미사일 등의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해 왔으며, 다양한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내정치 모델의 차원에서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혁명적 전통으로 강조하며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해 왔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당·군·정을 장악한 가운데 중앙집권화된 권력체제를 구축했

39) Scott D.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Winter 1996-1997, pp.54-86.

다. 따라서 김정은의 통치체제에서 핵무기는 선대의 유산으로 간주되었고,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해 북한은 과학기술정책과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셋째, 규범모델의 관점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을 보유한 ‘전략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 핵무력 건설과 국방력 강화를 추구해 왔다.金正은 집권 이후 북한이 ‘국가우주개발국⁴⁰⁾’을 창설하고, 우주개발을 자주적 권리라고 주장하며 정찰위성 시험발사를 추진한 사례는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 시도를 설명해 준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향후 5년간 핵무력 고도화에 방점을 둔 국방력 강화 방안으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무력 강화와 연계하여 전술핵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개발할 전망이다. ‘양탄일성(兩彈一星)’ 전략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병행 개발 계획은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다.



출처: 홍민,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KINU 연구총서』, 제22-24호, '22.12.30, p.39.

〈그림 1〉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병행 개발 로드맵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군이 핵무력 강화 전략으로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병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민은 향후 북한군이 우주발사체용 대형 액체·고체 연료엔진을 개발하고 ICBM용 고체연료 엔진과 다탄두 기술 전환, 위성기반 원격탐지추적 기술 확보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⁴¹⁾

40) 변상정,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개편 의미와 시사점”, 『INSS 이슈브리프』, 제469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3.10.13, p.1.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은 2023년 9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개편이 결정되었다.

41) 이상민, “2022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망 및 군사적 대비방향”, 『세종정책브리프』, 제2022-05호, 세종

3. 북한의 방위산업 현황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2023년 이후 북·러 양국의 무기거래와 군사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UN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쟁특수(戰爭特需)를 맞이하고 있는 북한은 주요 관영매체를 통해 김정은 총비서의 군수공장 현장지도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 당국이 군사보안의 차원에서 최고지도자의 행선지를 ‘기계공장’ 방문으로 위장 발표해 온 기존의 보도관행을 깨고, 최근에는 김정은 총비서의 군수공장 현지지도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 『노동신문』은 2023년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강도와 평안남도 일대의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통일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현대화(16회)’, ‘생산능력(12회)’, ‘전쟁준비(10회)’, ‘정밀화 및 질 제고(10회)’, ‘계열생산(5회)’ 등을 강조했다. 이러한 공개 행보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⁴²⁾ 첫째, 군수공장 현지지도는 핵·미사일 고도화와 연계하여 보다 강경한 대외정책 노선으로의 전환 의도를 시사한다는 점이다. 둘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도를 통해 제시한 메시지는 ‘무기체계를 제품화하는 생산능력의 확대’, 즉 ‘무기의 대량생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무기 대량생산의 목적으로 ‘전쟁준비 완성’을 강조한 것은 ‘① 최근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압박감과 초조함의 반영, ② 국제정세 긴장의 원인을 한·미에 전가하여 중국·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활용, ③ 대미·대남 심리적 압박 효과’를 노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군수산업이 전쟁준비와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방위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조직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주요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⁴³⁾ 북한의 방위산업은 최초 국방성과 총참모부에서 대상 무기체계의 소요를 제기하면,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군수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당 기계공업부와 내각의 업무를 지도한다. 기계공업부는 각 군수공장의 무기생산과 군수생산자재의 공급실태를 지도·감독하며 핵무기 개발을 주관하는 등 북한의 방위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또한 제2경제위원회는 무기체계 생산, 기술지원, 연구개발, 수출업무 등을 관장한다. 제1자연과학

연구소, 2022, p.8.

42) 홍민, “북한 김정은, 중요 군수공장 현지지도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제23-22호, 통일연구원, '23.8.17, pp.1-8.

43) 권양주, 앞의 책, p.217.

원은 우라늄 정제 등 무기체계 연구개발 관련 기초연구를 수행하며, 제2자연과학원은 미사일, 전자 등을 개발하는 각종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방위산업은 전쟁준비와 연관된 무기생산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발전해 온 구조적 특성과 한계를 갖고 있다. 냉전 시기 북한의 방위산업은 대규모의 지상전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북한의 방위산업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무기체계 연구개발·생산의 자립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적·경제적 한계로 인해 첨단기술과 원자재 수급 관련 대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다.⁴⁴⁾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전력은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성능개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군 전력의 기술적 우위를 상쇄하고 한·미 연합전력에 대한 억지력을 구비하기 위해 비대칭 전력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방위산업의 핵심인프라인 핵·미사일 생산시설은 북한 전역에 분산되어 있다. 각 군수공장들은 전문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협동생산을 통해 주요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있다. 핵개발 관련 인프라는 주로 영변에 밀집해 있으며, 대부분 은폐된 시설에서 운영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변에는 각종 원자로와 핵연료 생산시설, 재처리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핵무기 연구·제조·저장시설과 고품 실험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등 위치를 추정할 수 없는 다수의 미확인 시설을 운영중인 것으로 판단된다.⁴⁵⁾

북한군의 전쟁수행 가용능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전쟁지속능력과 연계된 국방비 지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 관련 수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 추세가 반영된 추정치를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 美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44) Jean Mackenzie, "North Korean weapons are killing Ukrainians: The implications are far bigger", BBC News, May 5, 2024. <https://www.bbc.com/news/world-asia-68933778>(검색일: 2024.5.20). 영국 국방송공사(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영국 분쟁무기연구소(Conflict Armament Research, CAR)에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에 투하된 러시아 발사 탄도미사일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이 탄도미사일이 북한산 '화성-11형'이라는 점과 미국·유럽에서 생산된 전자부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2023년 3월에 생산된 미국산 컴퓨터 칩이 확인된 점을 토대로 북한이 주요 부품을 불법적으로 조달한 증거와 함께 단기간 내에 생산한 무기체계를 러시아에 지원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영국 BBC가 보도한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방식은 홍콩, 중앙아시아 국가 등에 불법탈취자금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중국 국경을 통해 부품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사실은 2017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5) 통일연구원, "북한 분야별 실태 평가 및 변화 가능성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제19-15-01호, 통일연구원, '19.6월, p.73.

경제성장률과 국방예산 활용 관련 추정현황은 다음과 같다.⁴⁶⁾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여파로 2018년에 경제성장률이 약 4% 감소했으며, 2019년 소폭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무역차질로 인해 더욱 위축되었다. 또한 국방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약 7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추정된다. 북한은 GDP의 약 20~30%를 국방예산으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GDP 대비 국방비 사용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면서 다중·다양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및 무기생산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며, 관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 해외 무기거래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2002년 2월 12일, 美 국방장관이었던 럼스펠드(Donald Rumsfeld)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D)가 없다는 정보와 주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이른바 ‘알려진 것(Knowns)’과 ‘알려지지 않은 것(Unknowns)’의 비유를 통해 정당화한 바 있다. 당시 럼스펠드가 제시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⁴⁷⁾ 첫째, 이라크가 어느 정도의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미국도 잘 알고 있는 알려진 사실(Known knowns)’이었다. 둘째, 이라크의 정예병력과 무기체계들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는 ‘미국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알려진 사실(Known unknowns)’이었다. 셋째,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들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미국이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Unknown unknowns)’이었다. 북한의 전쟁지속능력은 정확한 군수산업 규모와 방위산업 역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Unknown unknowns)’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무력 건설과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위해 군사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방위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북한군은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진술무기화하고 ICBM·SLBM 등 각종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 향후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면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정찰위성 개발 등 국가전략산업인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46) U.S. Defense Intelligence Agency(DIA), “North Korea Military Power: A Growing Regional and Global Threat”, September 2021, p.13. https://www.dia.mil/Portals/110/Documents/News/North_Korea_Military_Power.pdf. (검색일: 2024.3.24). 1961년에 창설된 美 국방정보국은 해외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으로 1981년 소련의 군사력 관련 보고서 생산을 시작으로 2017년 이후부터는 북한을 포함하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대한 국방정보서를 발간하고 있다.

47) C-SPAN, “Defense Department Briefing”, February 12, 2002 <https://www.c-span.org/video/?168646-1/defense-department-briefing>. (검색일: 2024.3.25).

〈표 6〉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주요 무기체계 생산 현황

구 분	주 요 생 산 현 황
핵실험	• 제3~6차 핵실험, 6차 핵실험시 수소폭탄 검증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 화성-12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 은하-3호, 화성-14·15·16·17·18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 북극성-1·2·3·4·5형
해군전력	• 잠수함, 핵무인수중공격정(해일)
무인기	• 전략무인정찰기: 셋별-3형(美 RQ-4 글로벌호크와 유사한 형상) • 다목적 공격형무인기: 셋별-9형(美 MQ-9 리퍼와 유사한 형상)
전차	• 선군호(선군-915) • M2020 신형탱크: 6륜, 능동방어체계 및 대전차미사일 장착
전략순항미사일	• 화살 1·2형
극초음속미사일	• 화성-8형
신형 단거리 정밀타격미사일	•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최대사거리 약 400km, 목표지점에서 변칙기동) • KN-24: ATCMS와 유사,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핵탄두 장착 가능 • KN-25: 초대형 방사포, 연속사격, 고도억제와 궤도 조종 능력 탑재
우주발사체(SLV)	• 광명성 3호-2호기, 광명성 4호, 천리마 1형
군사정찰위성	• 만리경 1호

출처: 2012년 이후 무기체계 생산현황은 국방부·통일부 공개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함.

IV. 결론

1. 주요 시사점 및 함의

최근 美 국가정보국(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에서 발표한 2024년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위협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⁴⁸⁾ 첫째,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핵·재래식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48) U.S.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있으며, 안보환경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재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세적 행동을 감행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체제생존과 국가적 자부심을 보장해주는 핵 프로그램을 협상할 의사가 없으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에 기대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 고자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의 양적 확대를 추구함과 동시에 제7차 핵실험을 재 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핵무기 투발 옵션을 다양화하여 2차 보복 능력을 강화할 것이 다. 셋째, 북한은 미국의 MQ-9 리퍼, 글로벌 호크와 유사해 보이는 신형 무인기를 공개 했지만 기술적 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초음속 활 공체 등 첨단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섯째, 북한의 사이 버 프로그램은 매우 정교한 첩보활동과 사이버 범죄·공격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며, 현재 사이버 부대의 역량은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신냉전의 국제질서가 구조화하 면서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에는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치와 진영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의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북·중·러 3국의 전략적 연대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이에 북한은 보다 공세적인 군사전략 추구하고 국방력 강화에 대해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가 교착국면에 직면 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최근 국제질서는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대만 총통선거 이후 양안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북 한은 2024년 11월 美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향후 대미협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도 높은 군사도발을 통해 전략적 입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두드러진 북한의 군사전략 변 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략의 핵심요인인 ‘수단(Means)’ 의 관점에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 동향을 고찰하였다. 최근 가치와 진영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국가(Like-minded countries)’들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는 전환기적 국제질

Community”, February 5, 2024. pp.21-23. <https://www.odni.gov/files/ODNI/documents/assessments/ATA-2024-Unclassified-Report.pdf>. (검색일: 2024.3.20). 美 국가정보국(DNI)은 미국의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9·11테러 이후 정보수집 및 분석체계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채택된 정보개혁법에 따라 2004년 12월 8일에 창설되었다. 국가정보국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위협에 대해 연례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4년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는 북한이 세계적·지역적 차원에서 파괴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위협과 역량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서에서 북한은 체제생존을 넘어 새로운 전략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보다 강압적인 군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세적인 대남·대미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식 군사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과학기술정책을 토대로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국방력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전략무기화를 달성하였고 이미 다중·다양한 투발수단까지 확보하였다. 향후 북한군은 핵무력을 기반으로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지역 분쟁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된 하이브리드전을 배합함으로써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전략적·전술적 우위를 동시에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근미래에 한반도에서 전개될 전쟁은 재래식 전투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심리전(Information & Psychological Warfare), 소프트 타겟 테러(Soft Target Terror)⁴⁹⁾, 인지전(Cognitive Warfare) 등을 포함한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한국군의 대응방향

북한의 군사위협은 핵·미사일 위협을 넘어 사이버·우주공간을 포함하는 다영역의 전장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향후 핵무기와 투발수단을 한층 고도화함과 동시에 무인정찰·공격기와 같은 저비용·고효율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북한 김정은 체제는 전쟁지속능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군수공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향후 무기체계 생산의 양적·질적 확장에 필수적인 방위산업 인프라 건설에도 매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중전쟁에서 하이브리드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북한군은 기존의 핵/재래식 전력 기반의 군사전략에 사이버전, 정보전, 전자전, 인지전이 결합된 맞춤형 하이브리드전략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3기)과 각종 무인정찰기·전투용드론 등의 무인항공전력을 개발하여 전력화할 경우 북한군이 적용

49) 유병후·박보라, “소프트 타겟 테러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고찰”, 『한국테러학회보』, 제9권 제3호, 한국테러학회, 2016, p.159. 소프트 타겟은 “적절한 수준의 보안이 결여되어 있거나, 일반대중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대상을 보호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주요 시설 또는 주요 자원”을 뜻한다. 소프트 타겟의 특징은 민간인들이 소유하는 시설물이 대부분이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프트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즘은 대규모의 군중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소프트 타겟으로는 쇼핑몰, 호텔, 종교시설, 대중교통수단 등이 있다. 참고로 소프트 타겟과 상반되는 개념인 하드 타겟은 높은 수준의 보안수단을 갖춘 자산을 의미하며, 하드타겟은 일반대중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하고 물리적 강화수단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는 군사전략의 응용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작전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군이 고성능 군사정찰위성을 현 목표인 3기에서 10기까지 확대하여 실전운용할 경우 위성의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1~2시간까지 단축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군의 군사작전을 포함하여 한·미 연합 전력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함의가 매우 큰 사안이다.⁵⁰⁾

김정은 집권 이후 체제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추구해 온 북한의 국방력 강화는 이제 우주개발을 포함하여 다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⁵¹⁾ 한층 고도화된 핵·미사일 역량을 기반으로 핵전력·비핵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우주영역을 포괄하여 첨단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는 북한은 향후 보다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채택되었던 ‘9.19 군사합의서’가 사실상 파기되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은 더욱 모험적이고 공세적인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한국군은 국방혁신 4.0 추진을 기반으로 한·미 연합작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북한의 핵·재래식 군사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9.19 군사합의’가 백지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채택하고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작전환경은 이미 변곡점(Inflexion point)에 접어들었고, 동북아 지역에서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향후 북한군이 전술핵무기 운용⁵²⁾을 포함하여 핵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비핵·재래식 군사도발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⁵³⁾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은 북한의 군사위협

50) 윤상호, “막으론 남북 우주 군사경쟁, 대북 우주력 건설 박차 가해야”, 『동아일보』 2023년 12월 11일.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211/122581712/1>. (검색일: 2024.3.7).

51) 변상정, “김정은 시대 북한의 우주개발과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제190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2. 11월, pp.1-15.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력(Space power)은 ‘① 군사적 이용을 위한 하드파워, ② 국가 및 정권의 우수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소프트파워, ③ 사회 인프라’와 같이 다중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북한은 하드파워의 측면에 주목하여 우주개발의 군사적 이용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은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명분삼아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52) 김보미,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안보적 함의”, 『INSS 전략보고』, 제18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2. 9월, pp.3-7. 이 논문에서는 전술핵무기의 군사적 사용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전술핵무기는 작전적 유연성(Operational flexibility)을 갖는다. 즉, 재래식 전쟁에서 저위력 핵무기 사용을 고려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정책결정자들의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술핵무기는 과거 냉전시대에 확인된 바와 같이 군비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53) Frank G. Hoffman,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s*, Arlington, Virginia: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07, p.58.; Frank G. Hoffman, “Hybrid vs. Compound War: The Janus Choice”, *Armed Forces Journal*, October 2009.; 박일송·나종남,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 새로운 전쟁 양상?”, 『한국군사학논집』, 제71집 제3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연구소, 2015, p.13.에

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험대에 서 있다. 북한의 다층적 군사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4.0과 Army TIGER 체계 전환을 내실있게 구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⁵⁴⁾ 국방혁신 4.0은 인공지능(AI)·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전력, 군 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 연구개발(R&D)·전력증강체계 분야를 혁신하여 경쟁우위의 AI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방분야 혁신 계획이다.⁵⁵⁾ 또한 미래 육군을 상징하는 Army TIGER 4.0은 인공지능 기반 초연결 네트워크, 차세대 기동체계, 치명적인 타격체계,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현재 육군이 추진하는 모든 혁신의 최상위 개념이다.⁵⁶⁾ 현존 군사위협과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강(自強)과 동맹(同盟)을 두 축으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상호운용성에 기반하여 한·미 연합작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위협과 능력의 격차를 해소하여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접근법(Bridging the gap)이 필요하다.

한국군은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한 국방혁신 4.0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⁵⁷⁾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을 결합하는

서 재인용. 미국의 군사전문가인 호프만(Frank G. Hoffman)은 초기 연구에서 하이브리드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국가 또는 정치집단이 재래식 전쟁수행 능력, 비정규전 전술과 조직, 무차별적인 폭력과 강압을 동반하는 테러행위, 그리고 범죄 행위 등의 다양한 전쟁방식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전쟁.” 또한 호프만은 기존 개념에 동시성을 강조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장에서 재래식 무기, 비정규전 전술, 테러행위, 그리고 범죄행위를 융합하여 동시에 적절하게 운용하는 형태의 전쟁”으로 정의했다.

54) 이강경·김금륜, “국방혁신 4.0과 연계된 육군의 혁신전략”, 『국방정책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국방연구원, 2023년 겨울호, pp.65-99.

55) 국방부, “국방혁신 4.0 리플릿”, '23.2.28, pp.1-2. https://www.mnd.go.kr/user/mnd/upload/pblicitn/PBLICTNEBOOK_202303090232023320.pdf(검색일: 2024.5.19).

56) 국방부, “첨단과학기술 구현된 지상전투체계, ‘아미타이거’...미래 육군 ‘4세대 전투력’ 포효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1.4.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348>(검색일: 2024.5.18.). ‘Army TIGER 4.0’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TIGER는 육군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뜻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강화된 지상군의 혁신적 변화를 의미하는 “Transformative Innovation of Ground forces Enhanc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의 줄임말이다. 4.0의 의미는 현재 2.5세대 전력수준인 육군을 혁신하여 4세대 전력을 보유한 강군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57) 국방부 보도자료, “제2차군 수준을 국방 재설계, AI과학기술강군 육성: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실·군구조개혁담당관실, '23.3.3, pp.1-13.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래 국방환경의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용한 첨단전력을 구축함으로써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중이며 5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북핵·미사일 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② 군사전략·작전개념의 선도적 발전, ③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④ 군 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⑤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개념의 ‘재래식·핵 통합(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억제’ 전략 수립 및 대응 역량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출범시킴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한층 높인 점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한·미 양국간 핵협의그룹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체계가 가동되고, 핵 관련 기획·작전·연습·시뮬레이션·훈련에 대한 협력·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⁵⁸⁾ 한·미 연합작전태세를 기반으로 미국의 확장억제와 최근 한국군이 구축하고 있는 강력한 재래식 첨단전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경우 북한의 핵·재래식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신냉전의 국제질서와 다중전쟁의 시대에 북한의 현존 군사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는 미래전 양상에 실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을 동시에 준비해 나가야 한다.⁵⁹⁾ ‘전쟁의 미래’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다중전쟁과 주요 국제분쟁에서 보여지는 전쟁양상의 변화를 의미하며, ‘미래의 전쟁’은 지상·해상·공중을 넘어 사이버·우주로 확대되는 다영역의 전장공간에서 위협의 주체와 성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한국군은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 작전환경의 변화에 기반한 맞춤형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하이브리드전 및 다영역작전 수행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강석울,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 『KIDA 연구보고서』 안보2021-4658호, 한국국방연구원, 2021.11.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北韓法令集) 상권』, 서울: 국가정보원, 2022.10.
-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국방대학교, 2010.
- 국방대학원, 『안전보장이론』, 서울: 국방대학원, 1991.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2.12.
- _____, “국방혁신 4.0 리플릿”, ’23.2.28. https://www.mnd.go.kr/user/mnd/upload/pblicitn/PBLICTN_E_BOOK_202303090232023320.pdf(검색일: 2024.5.19).
- _____, “첨단과학기술 구현된 지상전투체계, ‘아미타이거’...미래 육군 ‘4세대 전투력’ 포효한다”, 대한민국

58) 대한민국 대통령실,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언론발표문”, ’23.7.18.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emxyMDyK>(검색일: 2024.5.18).

59) 신성호, “군사혁신, 그 성공과 실패: 한반도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국가전략』, 제25권 3호, 세종연구소, 2019, p.70.

- 국 정책브리핑, '21.4.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348>(검색일: 2024.5.18).
- 국방부 보도자료, “제2창군 수준의 국방 재설계, AI과학기술강군 육성: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실·군구조개혁담당관실, '23.3.3.
- 권양주, 『김정은 시대 북한 군사의 이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 김보미,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안보적 함의”, 『INSS 전략보고』 제18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9.
- _____,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국방력 발전계획”, 『INSS 연구보고서』 2022-0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2.
- 김철민,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유럽, ‘신냉전 무대’ 부상과 대응 현황”, 『EU연구』 제63호, 한국의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2.
- 김태현, “북한군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전략불균형’에 대한 ‘위험관리’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통권 제66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7.
- 남만권, “핵무장 전·후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비교”, 『군사학연구』 제5호,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2007.
- 대한민국 대통령실,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언론발표문”, '23.7.18.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emxyMDyK>(검색일: 2024.5.18).
- 류길재, “‘예외국가’의 제도화: 군사국가화 경향과 군의 역할 확대”, 최완규 편,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 서울, 한울, 2001.
- 박용환,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와 한국의 대응”, 『KIDA ROK Angle』, 한국국방연구원, 2023.12.26.
- 박용환, “북한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핵개발 이후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6권 제1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0.
- 박일송·나종남,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 새로운 전쟁 양상?”, 『한국군사학논집』 제71집 제3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5.
- 반길주, “냉전과 신냉전 역학비교: 미·중 패권경쟁의 내재적 역학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1.3월.
- 변상정, “김정은 시대 북한의 우주개발과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제190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11.
- _____,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개편 의미와 시사점”, 『INSS 이슈브리프』 제469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10.13.
- 송세관,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와 한국군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4.
- 신성호, “군사혁신, 그 성공과 실패: 한반도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국가전략』 제25권 3호, 세종연구소, 2019.
- 와다하루끼, 남기정 옮김, 『와다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파주: 창비, 2014.
- 유병후·박보라, “소프트 타겟 테러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고찰”, 『한국테러학회보』 제9권 제3호, 한국테러학회, 2016.
- 이강경 등, 『21세기 국가안보의 뉴패러다임』, 대구: 황금소나무, 2024.
- 이강경·김금률, “국방혁신 4.0과 연계된 육군의 혁신전략”, 『국방정책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국방연구원, 2023년 겨울호.

- 이상민, “2022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망 및 군사적 대비방향”, 『세종정책브리프』 제2022-05호, 세종연구소, 2022.
- 이상택,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軍史』 제112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9.
- 임재진, “‘상시전비국가(Nation-in-Arms)’ 개념의 북한 적용 가능성”,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5.
- 임철균, “북한의 군사혁신과 전략변화 가능성이 주는 함의: 북·중 군사혁신 간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제79집 제1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3.2.
- 통일연구원, “북한 분야별 실태 평가 및 변화 가능성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협동연구총서』 제19-15-01호, 2019.6.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북한의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42호, 2023.12.31.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 개론』,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0.
- 홍민,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KINU 연구총서』 제22-24호, 통일연구원, 2022. 12.30.
- _____, “북러의 군사협력과 외교적 밀착의 전략적 함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제23-35호, 통일연구원, 2023.10.23.
- _____, “북한 정전협정일 70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 『통일연구원 현안분석』 제23-18호, 통일연구원, 2023.7.29.
- _____, “북한 김정은, 중요 군수공장 현지지도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제23-22호, 통일연구원, 2023.8.17.
- 황진환, “북한의 군사혁신: 패턴과 전망”,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구보고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 '00.12.31.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211/122581712/1>.(검색일: 2024.3.7).

- Bitzinger, Richard A.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and the Global Defence Industry: Reactions and Interactions”, *Security Challenges*, Vol. 4, No. 4, Summer 2008. https://www.academia.edu/11905968/The_Revolution_in_Military_Affairs_and_the_Global_Defence_Industry_Reactions_and_Interactions.(검색일: 2024.3.12).
- Christensen, Thomas J. “No Cold War: Why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will not be like the U.S.-Soviet Cold War”,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eptember 2020. <https://en.asaninst.org/contents/no-new-cold-war-why-us-china-strategic-competition-will-not-be-like-the-us-soviet-cold-war/>.(검색일: 2024.3.3).
- C-SPAN, “Defense Department Briefing”, February 12, 2002. <https://www.c-span.org/video/?168646-1/defense-department-briefing>.(검색일: 2024.3.25).
- Ferguson, Niall, “The New Cold War? It’s with China, and It has already begun”, *The New York Times*, December 2, 2019.
- Garnett, John, “Strategic Studies and It’s Assumption”, in John Baylis, et. al(eds), *Contemporary Strategy and Policies*, New York Holms & Meier Pub., 1976.
- Gray, Colin S. *Modern Strate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Hoffman, Frank G.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s*(Arlington, Virginia:

-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07).
- _____. “Hybrid vs. Compound War: The Janus Choice”, *Armed Forces Journal* October 2009.
- Hundley, Richard O. “Past Revolution, Future Transformation: What can the history of revolutions in military affairs tell us about transforming the U.S. military?”, RAND’s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1999. https://www.rand.org/pubs/monograph_reports/MR1029.html.(검색일: 2024.3.17).
- Kaplan, Robert D. “A New Cold War Has Begun”, *Foreign Policy*, January 7, 2019. <https://foreignpolicy.com/2019/01/07/a-new-cold-war-has-begun/>(검색일: 2024.4.23).
- Krepinevich, Andrew, “From Cavalry to Computer: The Pattern of Military Revolutions”, *The National Interest*, No. 37, Fall 1994.
- Lasswell, Harold D. “The Garrison Stat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46, No. 4, January 1941.
- Lider, Julian, *Military Theory: Concept, Structure, Problems*, Aldershot, England: Gower Pub., 1983.
- Lykke, Arthur F. “Defining Military Strategy”, *Military Review*, January–February 1997.
- Mackenzie, Jean, “North Korean weapons are killing Ukrainians: The implications are far bigger,” BBC News, May 5, 2024. <https://www.bbc.com/news/world-asia-68933778>(검색일: 2024.5.20).
- Mearsheimer, John J. “Bound to Fail: The Rise and Fall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43, No. 4, 2019.
- Microsoft Threat Intelligence, “Sophistication, scope, and scale: Digital threats from East Asia increase in breadth and effectiveness”, September 2023. <https://query.prod.cms.rt.microsoft.com/cms/api/am/binary/RW1aFyW>.(검색일: 2024.2.20).
- Osgood, Robert E. *The Entangling Allia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 Sagan, Scott D.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Winter 1996–1997.
- Slipchenko, Vladimir I. “A Russian Analysis of Warfare Leading to Sixth Generation”, *Field Artillery*, October 1993.
- Steward, John P. and Lykke, Jr., Arther F.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1982.
-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Updated May 16, 2023). “Great Power Competition: Implications for Defense–Issues for Congress”,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3838/95>(검색일: 2024.4.24).
- _____.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CRS In Focus 10472*, Updated December 19, 2023. <https://sgp.fas.org/crs/nuke/IF10472.pdf>.(검색일: 2024.3.5).
- U.S. Defense Intelligence Agency(DIA), “North Korea Military Power: A Growing Regional and Global Threat”, September 2021. <https://www.dia.mil/Portals/110/Documents/News/North>

- _Korea_Military_Power.pdf.(검색일: 2024.3.24).
- U.S. Department of Defense(DoD), *Strategy(Joint Doctrine Note 1-18)*,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2018.
-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NIC), “North Korea: Scenarios for Leveraging Nuclear Weapons Through 2030”,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January 2023. <https://www.dni.gov/files/OODNI/documents/assessments/NIC-Declassified-NIE-North-Korea-Scenarios-For-Leveraging-Nuclear-Weapons-June2023.pdf>.(검색일: 2024.3.21).
- U.S.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February 5, 2024. <https://www.odni.gov/files/ODNI/documents/assessments/ATA-2024-Unclassified-Report.pdf>.(검색일: 2024.3.20).
- Wesley-Smith, Terence, “Chapter 2. A New Cold War?: Implications for the Pacific Islands”, in Graeme Smith and Terence Wesley-Smith(eds), *The China Alternative: Changing Regional Order in the Pacific Islands* edited by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2021.
- Zhu, Zhiqun, “The Growing U.S.-China Conflict: Why, and Now What?”, *The National Interest*, June 5, 2019.

【 Abstract 】

A Study on Changes in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and Strengthening of Defense Forces

Lee, Kang Kyong · Seol, Hyeon Ju

In order to examine the process of remarkable changes in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since Kim Jong Un took power in the international order of the New Cold War, and to empirically analyze it, the trend of strengthening North Korea's defense capabilities was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Means, a key element of the strategy. In a transitional international order in which the strategic alliance of “like-minded countries” is strengthened around values and camps, North Korea is expected to pursue a more coercive military strategy to establish its status as a new strategic country beyond the survival of its regime.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accelerate military innovation in the North Korean style to support its aggressive strategy toward the South and the United States, and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weapons systems and the defense industry based o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With the recent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blanked, the operational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has already entered an inflection point, and the possibility of conflict in Northeast Asia has increased. In the future, the North Korean military is expected to lower the threshold for nuclear use, including the opera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conduct various hybrid warfare with non-nuclear and conventional military provocations, and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at the test of finding a countermeasure to effectively curb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Key Words : New Cold War, Military strategy,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Nuclear strategy, Strengthening of Defense Forces

• 논문투고일 : 2024년 4월 27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4년 5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5월 16일